

I. 國內外 經濟 概觀

전체적인 불황속 일부 업종 회복 조짐

- (最近 景氣의 特徵) 불황 국면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의 수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더구나 엔화 환율의 강세 전환으로 일본과 경쟁 관계의 업종에서 수출 회복이 예상됨
- (資金 市場) 대기업 부도 사태 이후 금융권의 대출 기피와 신축적인 통화 관리로 금융권의 자금 사정은 비교적 좋은 편이나 기업의 체감 자금 사정은 악화. 하반기 이후 회사채 발행 물량의 증가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4分期 景氣 展望) 불황국면은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금융지표는 1/4 분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띠 것으로 보임. 무역적자는 다소 호전되어 2/4분기 중 35억 ~45억 달러 적자 예상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반도체는 16메가 DRAM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도 3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2월 10억 7천만 달러에서 3월 12억 8천만 달러)
 - 석유화학은 주력 수출품의 가격이 20% 정도 상승하는 등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불황에서 벗어날 조짐
 - 철강은 세계 시장의 경기 호조로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 가격도 회복 움직임을 보여 하반기부터 본격 상승세 전망
 - 조선은 1/4분기 수주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2배에 이르렀고 있으며 일본 업체들의 추가 수주 능력 감소로 연말까지의 수주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
- 자동차와 기계 부문의 전망은 아직 밝지 못함
 - 자동차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對 개도국 수출 증가에 진력하고 있으나 내수 시장과 선진국 시장에서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기계는 경기 불황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침체가 지속될 것임. 1/4분기 중 일반 기계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

엔화의 강세가 지속되면 하반기부터는 수출 회복이 두드러질 전망

- 엔화 환율의 강세 기조가 계속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출 호조 예상
 - 4월말까지 달러당 125엔 수준에 머물던 엔화 환율이 강세로 반전하여 5월 15일 현재 달러당 115엔 수준까지 하락
 - 엔화 가치의 변동에 따라 일본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 업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엔화 환율이 달러당 110엔 이하까지 하락하면 대부분의 수출 주력 업종에서 수출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

현재 금융권의 유동성은 비교적 풍부한 상태이나 기업의 체감 자금 사정은 악화

- 대기업 부도사태 이후 금융권의 대출 기피와 불황으로 인한 자금 수요의 감소로 금융권의 자금 사정은 비교적 안정된 반면, 기업의 체감 자금 사정은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악화
 - (금융권의 대출 기피) 한보, 삼미의 부도 이후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여신거래처에 대한 한도 조정에 착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함께 일부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 조정. 아울러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장 기피 현상 발생
 - (자금 수요 감소)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의 설비, 운전 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자금 공급) 재정자금의 지속적 방출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 운용으로 금융권의 유동성은 풍부한 편임
 - 통화지표가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여 물가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통화 환수에 나선다는 입장 고수
 - 교원 급여 등 재정 자금의 방출과 12월 결산 법인의 세금 환급 등으로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

를 유지

2/4분기에는 불황
지속되나 무역수
지 개선 전망

- 2/4분기는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 하락 속도는 둔화될 전망
 - (불황 국면 지속) 불황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나 경기의 하락 속도는 상당히 둔화될 전망
 - 생산, 출하, 재고 지표가 모두 1/4분기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임
 - 실업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으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업률은 3% 이하로 하락 전망
 - (금융지표의 상대적 안정) 1/4분기에 비해 각종 금융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 엔화 환율의 하락이 예상되나 원/엔 환율을 수출 업종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한은이 시장 개입을 시도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80~890원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 당국의 금리 안정 의지 및 경제 여건 호전에 따라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6월 이후 회사채 발행 조건 완화에 따른 공급 물량 증대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무역수지 다소 개선) 수출 주력 업종의 교역조건 개선과 가격경쟁력 회복, 수입 증가세의 둔화로 2/4분기중의 무역수지 적자는 1/4분기의 74억 달러 수준에서 35~45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조 홍 래, 김 범 구)

海外 景氣 概觀

世界 景氣 現況 및 展望

- (現況) 미국 경기의 활황 및 중남미 경기의 회복세가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展望) 97년 세계 경기는 미국 및 중남미의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일본 및 서유럽 국가들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여 4% 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아시아 개도국들은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경기
활황 및 중남
미 경기 회복
의 가시화가
세계 경제 성
장의 원동력

- (現況) 일본 및 서유럽 국가들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세계 경기의 원동력은 미국의 경기 활황세 및 중남미권의 경기 회복 가시화인 것으로 평가됨
- (세계 경제 성장률) 95년에 2.9%를 기록했던 세계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96년에는 3.2%로 상승한데 이어 97년에도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 96년에 2.4% 성장률을 보여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했던 미국 경제는 97년에 들어서 활황세를 보여 1/4분기 실질 성장률이 전분기대비(연율) 5.6%를 기록하였음
 - 고용 증대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문의 실질 소득이 증대하여 민간 소비가 건실한 상태를 유지
- (일본) 96년에 3.6%의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부진하였던 일본 경제는 97년 1/4분기에 민간 소비가 크게 증대하면서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 기미를 보임
 - 그러나 이러한 민간소비 증대는 4월 소비세 인상 이전의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
- (서유럽) 재정긴축 정책으로 高실업이 해소되지 않아 96년 전체적으로는 성장세가 부진하였으나,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됨
- (아시아 개도국) 엔저 영향의 가시화로 수출이 부진하여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남미) 경제 구조의 개편을 통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로 95년의 경기 급락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돌입

- (체제 전환국)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정치적인 불안정도 해소되지 않아서 96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97년 세계경기는 4% 내외의 고성장 예상

- (展望) 미국 및 중남미의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일본 및 서유럽 국가의 완만한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97년 세계 경기는 4% 내외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음

과열 양상의 미국 경기는 향후 둔화 예상 속에서도 3%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듯

- (미국) 경기 과열을 우려한 연준(FRB)이 지난 3월에 이어 공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경기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연간 3% 내외의 성장세는 유지할 전망
- 96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주가 상승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상승하여 민간 소비가 호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금리 및 임금 상승세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기업의 수익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美증시도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음
- 하반기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중 유동성 악화로 기업의 설비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 및 서유럽 국가들은 완만한 회복세 지속할 듯

- (일본) 2/4분기에는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경기가 소폭 위축될 전망이나, 엔저 영향의 가시화로 인한 수출 회복 및 장기적인 저금리에 따른 투자 증대 등으로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어 연간 2%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
- 일본의 경우 재정 긴축과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향후 건실한 성장세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서유럽) 수출 증대 및 저금리 정책에 따른 투자 회복으로 2% 이상의 건실한 성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 재정 긴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 심리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지적됨

- 중남미의 본격적인 성장 속에 아시아 개도국은 경기 둔화가 지속될 전망
- (아시아 개도국) 달러화 강세(엔저) 영향의 가시화로 수출이 부진할 전망이다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의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차입 여건도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경기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 특히, 한국 및 태국 등의 금융 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급속한 경기 냉각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 (중남미)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물가 안정 속에 4%대의 건실한 성장세가 전망됨
 - 미국의 금리 상승에 따른 대외 부채 부담의 증대와 경기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악화가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체제 전환국) 러시아는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경제 구조 개혁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동구권 국가들도 통화 및 재정 정책 등 경기 부양책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
 - 그러나 경제 구조 개혁이 예상만큼 진전되지 않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 부진하면 경기 회복이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김 재 철)

<세계 경제 실질 성장률>

(%)

	1993	1994	1995	1996	1997	
					WEFA	IMF
전세계	1.8	3.1	2.9	3.2	3.7	4.4
선진국	0.8	2.8	2.1	2.3	2.4	2.9
미국	2.3	3.5	2.0	2.4	2.8	3.0
일본	0.3	0.7	1.3	3.7	2.0	2.2
서유럽	-0.5	2.9	2.4	1.6	2.2	2.3
아시아신흥국	6.5	7.7	7.7	6.7	6.4	8.3
중국	13.5	12.7	10.5	9.7	10.0	-
중남미	3.8	5.6	0.4	3.4	4.6	4.4
구소련·동구	-9.3	-12.8	-3.9	-2.4	2.7	3.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 4.

WEFA, *Executive Summary - World Outlook*, 1997. 4.

주 : IMF의 서유럽 성장률 전망은 독일의 성장률이며, 아시아신흥국에는 중국 포함

II. 經濟 指標 포커스

1. 輸出, 增加勢로 反轉

- (現況) 97년 4월 중 수출은 올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의 증가세를 보임
- (原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展望) 앞으로도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월 중 수출,
증가세로 反轉

- (現況) 올 4월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가 증가한 113.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1.6% 증가한 128.8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올들어 처음이며 수입 증가율보다 수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96년 6월 이후 10개월만임
 - 지역별로는 對선진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가 증가하여 1/4분기의 -14.9%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反轉됨
 -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올들어 가장 낮은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주력 수출 품목
의 수출 회복
조짐

- (原因) 이러한 수출의 증가세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회복에서 비롯된 것임
 -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가 감소되었으나 1/4분기에 비해 감소율이 현저히 둔화되었는데, 이는 반도체의 국제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임
 - 16MD의 국제 가격은 97년 1/4분기에는 8.5~9.5 달러였으나 4월에는 8.5~10.0 달러로 상승하였음
 - 반도체를 제외한 기타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97년 1/4분기의 3.1%에 비해 4월에는 10.5%로 점차 회복 추세를 보임
 -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은 1월의 -53.1%에서 4월에

- 는 11.6%로 크게 상승하였음
- 철강의 경우도 1월의 -3.4%에서 4월에는 24.7%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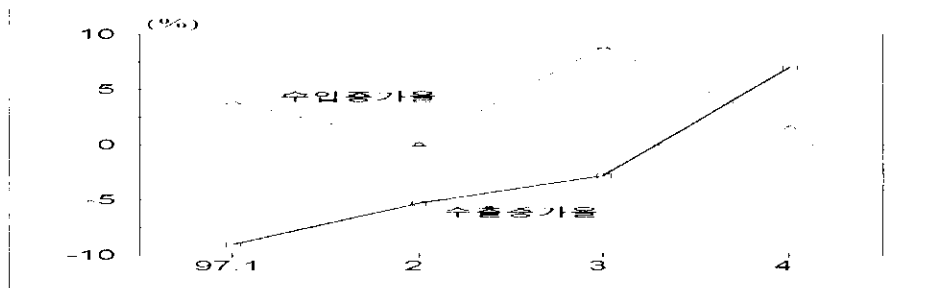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율 추이>

(전년 동월 대비, %)

	97. 1	97. 2	97. 3	97. 4
반도체	-42.0	44.2	-36.9	-14.2
자동차	-53.1	-14.1	2.5	11.6
철강	-3.4	16.6	8.7	24.7
석유화학	5.6	9.5	7.3	15.9
섬유·직물	5.6	4.5	8.5	10.0

자료 : 「4월중 수출입 동향」, 통상산업부

<수출·수입 증가율 추이>



수출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展望) 앞으로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단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반도체의 경우 16MD의 수출 단가가 10 달러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PC 수요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의 경우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 노력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 철강은 세계 경기 호조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높은 상승세가 예상됨
- 수입 증가율은 국제 유가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율의 감소와 설비 투자의 감소로 인한 자본재 수입의 감소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임 병 수)

2. 勞動生産性¹⁾ 增加

○(動向) 96년도 (물적)노동生産성이 전년대비 12.4% 증가하면서 11.9%의 증가율을 기록한 명목임금 상승률을 70년대 이후 최초로 상회
 ○(評價) 단기간에는 임금과 생산성 지표의 추이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두 지표간의 변화 추이가 장기적으로는 동행

96년도 노동생산성이 12.4% 증가하며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

- (動向) 96년도에 (물적)노동生産성이 전년대비 12.4% 증가하면서 11.9%의 증가를 보인 명목임금 상승률을 70년대 이후 최초로 상회²⁾
 - 명목임금은 70년대에 30%대, 80년대에 10%~20%대의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90년대에도 연평균 13% 수준의 상승 추세를 보여옴
 - 90년 이후 임금상승률은 11%대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노동생산성은 80년대까지는 한자리수 증가에 머물렀으며 9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10%대 이상의 증가율로 높아짐
 - 자본장비율의 상승, 생산효율성 증대도 노동생산성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96년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 증가와 임금인상 억제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됨
 - 95년에는 노동투입량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노동생산성도 높게 증가
 - 한편 96년은 산출량 증가가 6~7%대로 낮아진 가운데 노동투입량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짐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와 임금인상 억제가 임금을 초과하는 노동생산성 증가를 초래

1) 노동투입량 한 단위당 산출량으로 정의되며 생산의 효율성 지표, 적정임금의 기준으로 사용됨. 노동투입량은 총노동량 또는 취업자수를 사용하고 산출량의 정의에 따라 물적노동생산성과(부가)가치노동생산성으로 대별됨. 한편, 노동생산성은 자본, 기술 등 여타 생산요소와 경제 환경에도 영향을 받음.

2)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비교 분석은 설정 지표의 개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임금은 명목임금, 실질임금, 단위노동비용 등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생산성도 물적노동생산성, 불변 및 경상 부가가치노동생산성 등으로 표시됨.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임금과 생산성 비교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임금과 실질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을 참고 지표로 사용함.

임금과 생산성 지표 추이가 단기간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상승률을 한차례 초과한 노동생산성을 근거로 한 임금 인상 요구는 부적합함

명목임금의 단기간 과도한 상승과 실질임금의 높은 상승에서 고임금 문제 초래

○ (評價) 단기간에는 임금과 생산성 지표의 추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두 지표간의 변화 추이가 장기적으로는 동행

- 국내 제조업의 경우 89, 92년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졌음에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더욱 높아짐
- 반면 86, 91년에는 생산성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었음
-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임금 상승과 생산성 증가가 시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96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을 한차례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하는 임금 인상 요구는 적합하지 않음
- 한편 장기적으로는 실질임금의 변화 추이와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가 동행하는 경향을 보임
- 71~95년까지 25년간의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은 연평균 8.3% 수준의 동일한 증가율을 보임
- 일본도 제조업 생산성이 68년 이후 크게 상승한 반면 임금은 73년부터 오르기 시작함
- 국내 경제의 고임금 문제는 명목임금이 단기간에 너무 상승했고 실질임금 상승률도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데 있음
- 제조업의 경우 87~95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9.9%에 달해 미국, 일본의 -1.0%, 1.4%은 물론 대만의 6.5% 보다는 높음
- 또한 동기간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도 4.4%를 기록하여 선진국, 대만(2.1%)과 비교해서도 높음

(민 주 흥)

<생산성과 임금 관련 지표의 최근 추이>

(전년 대비 증가율, %)

	91	92	93	94	95	96
물적노동생산성	13.8	10.7	8.0	10.1	10.4	12.4
부가가치노동생산성(실질)	13.4	10.1	8.6	9.6	9.4	-
명목임금(전산업, 월평균)	17.5	15.2	12.2	12.7	11.2	11.9
실질임금(전산업, 월평균)	7.5	8.4	7.0	6.1	6.4	6.6

주 : 노동생산성은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기준

3. 物價 安定勢 持續

- (現況) 9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原因) 경기 불황, 국제 원유가 안정, 공공요금(각급 학교 납입금)상승률 둔화 등이 주요 요인
- (評價) 최근 세계적인 물가 안정 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견고한 물가 안정 기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96년 4월의 소비자 물가는 과거에 비해 매우 안정된 수준

- (現況) 97년 4월 현재 소비자 물가는 과거에 비해 매우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97년 4월 전년말 대비 물가 상승률은 2.2%로 나타나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4월의 전년말 대비 물가상승률은 94년에 3.5%, 95년에 3.1%, 96년에는 2.9%였음
 -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었던 95, 96년과 비교해 불 때 공업제품과 집세 항목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높으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다른 부분의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임
 - 농수축산물 항목은 96년 大豊에 따른 가격 하락분의 반등, 집세 항목은 연초의 부동산가격 불안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

< 4월 중 전년말 대비 물가 상승률 비교 >

(전년말 대비 %)

	전체	농수 축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집세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외식
1995년 4월	3.1	3.8	1.4	4.1	1.2	6.5	4.9	2.3
1996년 4월	2.9	1.2	1.9	3.3	0.9	5.0	4.3	2.6
1997년 4월	2.2	4.3	1.2	2.3	1.3	1.9	4.2	1.0

자료 : 「소비자 물가」, 통계청

97년 물가 안정은 경기 침체, 교육비 상승률 둔화, 원유가 안정 등에 기인함

- (原因) 경기 침체, 국제 원유가 안정, 교육비 상승률 둔화가 물가 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불황의 여파에 의한 내수 침체로 수요 견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약화
 - 원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의 안정도 국내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두바이(Dubai)産 원유의 경우 96년 12월에 배럴당 22 달러수준에서 5월 초 현재 17 달러수준으로 하락
 - 각급 학교 납입금 상승률 둔화로 3월 중 전월대비 교육비 상승률은 95년의 7.0%, 96년의 7.1%에서 97년 3월에는 4.1%로 낮아짐
 - 이는 95, 96년에 비해 97년 소비자 물가를 약 0.3%p 낮추는 효과가 있음

선진국과 비교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임

- (評價) 9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대에서 안정시키더라도 이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농산물 해거리 현상, 大選 등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97년 물가는 4%대에서 안정될 전망
 - 그러나 4%대의 물가 상승률은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또한 물가 안정 정책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억제에 의존하는 등 후진적인 관행이 남아있음
 - 물가 안정과 이에 따른 임금 및 금리 안정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물가 안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이 태 열)

< 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교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81~85 평균	7.34	5.50	2.82	3.92	9.64	7.24	12.10
86~90 평균	5.42	3.96	1.38	1.36	3.08	5.94	9.38
91~95 평균	6.20	3.12	1.36	3.54	2.22	3.40	2.08

자료 : 「한국 주요 경제 지표」, 통계청, 1996. 9.

주: 물가상승률은 기간 중 연평균 물가 상승률의 단순 평균임